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행동 관련 변인 연구

문 혁 준(가톨릭대학교 교수)

유아의 사회적 행동은 유아 초기의 애착,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이후의 사회적 적응등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며, 유아가 속한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생활해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행동이 향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발달적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어머니 변인들이 저소득층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관련 변인을 알아봄으로써 저소득층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며, 이를 통해 유아교육현장에서 사회적 행동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 방법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실천적 필요성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지역의 저소득층에 위치하는 4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437명과 그들의 어머니 437명이다. 검사도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사회적 행동 검사는 박해연(2003), 유아의 기질은 한세영(1996), 정서지능은 이병래(1997), 어머니의 성격은 박성연, 전현진(1999), 어머니의 또래관리전략은 박주희(2001)가 번안 또는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성격과 어머니의 자녀 또래전략에 대한 검사도구를 유아편으로 각 가정에 배부한 후 회수하였으며, 유아의 기질, 정서지능, 사회적 행동은 담임교사가 평소 유아의 행동 관찰을 토대로 검사 도구에 표시하게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여아의 사회적 행동이 남아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친사회적이며, 남아는 부정적 행동을 더 많이 하며, 여아가 사회·정서적으로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남아와 여아 모두 사회적 행동에 있어 정서지능이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아동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서지능이 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식중심의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대의 유아들에게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시켜 사회적 행동의 증진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한,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유아기에 어머니들은 자녀의 사회적 행동에 관심을 갖고 어머니의 성격과 자녀의 또래관계 전략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정서지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 교육활동으로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증진시켜야 하며,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과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